

연타석포 페라자 "만원 관중 앞에서 홈런 친 건 처음"(종합)

등록 2024.03.24 17:40:30



[서울=뉴시스] 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한화 이글스의 새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26)가 KBO리그 데뷔 1호 홈런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쏟아낸 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페라자는 2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 우익수 겸 2번타자로 선발출전, 4회초 솔로 홈런, 6회 솔로 홈런을 터뜨려 8-4 승리를 이끌었다.

한화는 페라자의 연타석 홈런과 채은성의 셋기 3점포물에 힘입어 개막전 패배를 설욕했다.

0-1로 뒤진 4회초 1사 자주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등장한 페라자는 LG 선발 임찬규의 4구째 129.4km짜리 체인지업을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기는 통산 1호 아치를 그려냈다.

타구속도는 170km에 육박했고, 비거리는 122.6m였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화려한 포물선을 그렸다.

손맛을 본 페라자는 2-1로 앞선 6회 타석에서도 LG 선발 임찬규의 커브를 노려쳐 우월 솔로포를 날렸다. 비거리 115.7m짜리 홈런이었다.

페라자는 개막 2경기 연속 멀티히트에 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페라자는 빅리그에서 된 경험은 없다. 하지만 한화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총액 100만 달러에 영입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끈 페라자는 "오늘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 홈런을 쳐서 기쁘고, 팀에서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변화구에 강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 투수들이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페라자는 홈런을 친 후 시원한 배트 플립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안타만 열심히 치기보다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배트 플립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나도 해봤다. 배트 플립은 재밌는 행동이고, 스포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즐기려고 한다"고 웃었다.

그는 이틀 연속 만원 관중에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페라자는 "이런 큰 경기장에서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걸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만원 관중은 처음이지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목표는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페라자는 "가장 큰 목표는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의 에너지와 내 실력으로 팀원들에게 힘이 되고 싶고, 이기는 경기를 많이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